

# 현안과 과제

- 2023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4년 전망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목 차

## ■ 2023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4년 전망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2023년 북한경제 평가 .....	2
3. 2024년 북한경제 전망과 과제 .....	12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경제센터 : 이해정 연구위원 (02-2072-6226, hjlee@hri.co.kr)  
강성현 선임연구원 (02-2072-6221, shkang@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23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4년 전망

#### ■ 개요

북한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을 결산하고 2024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번 전원회의 보도 중 경제 부문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2023년 북한경제를 평가하고, 2024년 북한경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 ■ 2023년 북한경제 평가

2023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3차년도로 북한은 12개 주요 산업 부문(‘12개 중요고지’)의 목표이행을 독려하여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번 12월 전원회의에서는 ‘5개년계획 수행의 중반기를 성공적으로 경과’했다고 자평하면서 12개 중요고지에서 ‘연이어 승전고가 울려 퍼졌다’고 보도하였다.

#### < 2023년 주요 산업 생산물 생산 실적 >

12개 중요고지 계획 달성률	중요지표 생산량(2020년 대비)
-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 모두 점령 - ① 알곡: 103%, ② 전력, 석탄, 질소비료: 100%, ③ 압연강재: 102%, ④ 유색금속: 131%, ⑤ 통나무: 109%, ⑥ 세멘트, 일반천: 101%, ⑦ 수산물: 105%, ⑧ 철도화물수송량: 106%, ⑨ 살림집은 건설중에 있는 세대수: 109%	- 국내총생산액 1.4배 증가 - 삼화철 3.5배 증가, 선철 2.7배 증가, 압연강재 1.9배 증가, 공작기계 5.1배 증가, 세멘트 1.4배 증가, 질소비료 1.3배 증가

자료 :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자.

우선, 2023년 대내경제(식의주 문제와 기간공업)를 살펴보면 농업 부문의 경우 북한은 알곡생산을 12개 중요고지 가운데 1순위로 설정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투입했으며 양호한 기상조건 등으로 인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경공업 부문의 경우, 국산품 생산 독려 및 지방 공장의 자력갱생 강조, 중북무역 재개에 따른 중간재 공급 원활화로 생산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 부문은 농업과 더불어 2023년 최고 성과로 언급되며 평양의 화성지구 2단계 및 서포지구 건설사업, 검덕지구 건설사업, 농촌 살림집 건설사업 등에서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간공업의 경우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큰 타격을 입은 중화학공업의 정비보강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23년에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2020년 대비 중 생산품(금속, 공작기계, 시멘트, 비료 등)의 생산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대외경제의 경우 중북무역의 회복세와 국경봉쇄 해제, 9월 러북정상회담 개최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되며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회복되었다. 중북무역의 경우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총무역액은 약 20.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4.7% 증가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무역액의 81.6%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러북협력의 경우 2023년 9월 정상회담 이후 연이은 러시아 정부대표단의 방북이 이뤄지면서 러북 간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 2024년 북한경제 전망과 과제

2024년 북한경제 및 산업 정책 방향은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24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4년차 목표 수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전망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4년에 (8차) 당대회결정관철에서 ‘미진되거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된 힘을 넣을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2024년에 정비보강사업을 다그쳐 끝내며 ‘12개 중요고지’를 계속 내세우고 힘을 집중하자고 강조하는 한편, 기간공업 특히, 기계공업 부문 과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

2024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지속 등으로 북한 경제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여건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 강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의 루프홀(loophole·구멍)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의 정책 과제로서 중북 간 관광 재개 가능성에 주목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4년은 중북 수교 75주년으로 중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한 대규모 인적 교류 재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에 발맞춰 남북 간 추진 가능한 협력 분야에 대한 검토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주요 접경 지역 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계획과 북한의 지방경제발전 정책, 남북간 기존 협력 경험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 주요 인적·물적 자원 등을 고려한 효과적 협력 과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 1. 개요1)

### ○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을 결산하고 2024년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23.12.26~30)

– 북한은 2023년을 8차 당대회 이후(2021.1) ‘가장 고무적인 변혁의 해’,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로 충만된 해’로 평가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의 대내외 형세에 대해 ‘3년 나마(남짓) 지속된 국제적인 공중보건비상사태’, ‘적대·방해세력들의 극악한 제재 압박’, ‘험악한 안전 환경’ 등 이른바 3중고(重苦)와 더불어 ‘심각한 식량난’을 언급

※ 김 총비서는 “세번째 해의 목표달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겠는가 아니면 직면한 난국을 넘기는데로 모든 것을 지향하겠는가 하는 량자택일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2022년 말~2023년 초의 대내외 정세가 매우 어려웠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음.

- 그럼에도 2023년 ‘사회주의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전진속도를 가속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든든한 발판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평가

– 금번 전원회의에서는 ‘2023년 결산(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 총화) 및 2024년 국정 운영 방향(투쟁 방향)’을 비롯한 6개 의정이 다뤄짐

- 별도 의정으로서 학생용품 공급 문제, ‘당중앙검사위원회 2023년 사업정형’ 심의, ‘당의 령도적 기능’ 강화 문제 등을 논의하였음
- 한편으로는 예년과 같이 2024년도 국가예산안 검토·심의와 조직문제를 다룸

### ○ 본 보고서는 금 번 전원회의 보도 중 경제 부문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2023년 북한 경제를 평가하고 2024년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자 함

#### <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의정 >

6대 의정
의정 ① :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
의정 ② :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하여
의정 ③ : 당중앙검사위원회 2023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
의정 ④ :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의정 ⑤ : 현시기 당의 령도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의정 ⑥ : 조직문제

자료 :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자.

1) 본고는 이해정,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전망- 경제·사회,” 『2024년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통일교육선도사업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주최 토론회, pp. 9~16를 수정·보완한 것임.

## 2. 2023년 북한경제 평가

○ 2023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차년도로 북한은 12개 주요 산업 부문('12개 중요고지')의 생산목표치를 제시하고 이행을 독려하여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최근 북한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보건 위기'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자연재해'라는 3중고와 더불어 식량난 문제가 대두
  -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2017년부터 역(-)성장 추세에 놓여 있음
  -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강도 방역정책을 펼치면서 경제성장률이 근 10년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4.5%)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의 경우 김정은 총비서가 금번 전원회의에서 직접 언급했듯 농업부문의 작황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2023년 '심각한 식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북한은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알곡생산을 '12개 중요고지' 중 첫 번째 고지로 정하고, 2023년 2월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농촌·농업 문제를 집중 논의하며 식량 문제 해결에 고심

### <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추이 >

(단위 : %)

산업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국내총생산	1.1	1.0	-1.1	3.9	-3.5	-4.1	0.4	-4.5	-0.1	-0.2
농림어업	1.9	1.2	-0.8	2.5	-1.3	-1.8	1.4	-7.6	6.2	-2.1
광업	2.1	1.6	-2.6	8.4	-11.0	-17.8	-0.7	-9.6	-11.7	4.6
경공업	1.4	1.5	-0.8	1.1	0.1	-2.6	1.0	-7.5	-2.6	5.0
중화학공업	1.0	0.5	-4.6	6.7	-10.4	-12.4	-2.3	-1.6	-3.7	-9.5
전기·가스·수도업	2.3	-2.8	-12.7	22.3	-2.9	5.7	-4.2	1.6	6.0	3.5
건설업	-1.0	1.4	4.8	1.2	-4.4	-4.4	2.9	1.3	1.8	2.2
서비스업	0.3	1.3	0.8	0.6	0.5	0.9	0.9	-4.0	-0.4	1.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북한은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해야 할 경제지표와 ‘12개 중요고지’를 제시
  - 당시 회의에서 2023년 경제부문 주요 목표로 “전반적 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 것을 경제사업의 중심 과업”으로 제시
  - 이와 더불어 ‘12개 중요고지’라는 주요 산업의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7월 상반기 계획을 목표 대비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도하기도 함(로동신문, 7.4)
    - ※ 12개 중요고지 : 알곡(식량작물), 전력, 석탄, 압연강재, 유색금속(비철금속), 질소비료, 세멘트(시멘트), 통나무, 천(옷감), 수산물, 살림집(주택), 철도화물수송량.
  
- 한편,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는 ‘풍작’과 ‘살림집 건설’을 2023년 경제부문 성과로 언급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중 남은 2년간 무조건 관철 과업으로 12개 중요고지,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및 지방·농촌 건설, 육아보육 정책, 경공업 정책 등의 집행을 강조
  
- 12월 전원회의에서는 ‘5개년계획 수행의 중반기를 성공적으로 경과’했다고 자평하면서 12개 중요고지에서 ‘연이어 승전고가 울려 퍼졌다’고 보도
  - 농업과 살림집 건설 부문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이례적으로 12개 중요고지 계획 달성률(전 부문 목표 달성)과 2020년 대비 중요지표 생산실적을 공개
  - 특히, 2023년 국내총생산액이 2020년 대비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8차 당대회의 목표 중 하나로 추정되는 ‘2025년 국내총생산액의 2020년 대비 1.4배 이상 장성’과 관련이 있어 보임<sup>2)</sup>

< 2023년 주요 산업 생산물 생산 실적 >

12개 중요고지 계획 달성률	중요지표 생산량(2020년 대비)
-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 모두 점령 - ① 알곡: 103%, ② 전력, 석탄, 질소비료: 100%, ③ 압연강재: 102%, ④ 유색금속: 131%, ⑤ 통나무: 109%, ⑥ 세멘트, 일반천: 101%, ⑦ 수산물: 105%, ⑧ 철도화물수송량: 106%, ⑨ 살림집은 건설중에 있는 세대수: 109%	- 국내총생산액 1.4배 증가 - 삼화철 3.5배 증가, 선철 2.7배 증가, 압연강재 1.9배 증가, 공작기계 5.1배 증가, 세멘트 1.4배 증가, 질소비료 1.3배 증가,

자료 :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자.

2) 해당 목표는 2022년 9월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진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바 있음.

- 다만, 금 번 공개된 생산 실적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
  - 북한은 2022년 말 ‘12개 중요고지’의 구체적인 생산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금 번 공개한 실적 또한 목표(계획) 대비 달성률(%)로 표현해 정확한 생산량을 알 수 없는 상황
  - 다만, 북한이 추진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의 기본 성격이 ‘정비보강전략’이라는 점에서 ‘12개 중요고지’의 목표 자체가 현재 북한의 생산 능력을 크게 웃도는 수준에서 설정되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 중요지표 생산량의 경우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던 2020년과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금 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 있음<sup>3)</sup>
  - 북한이 12개 중요고지 계획 달성이나 중요지표 증산 실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때, 2023년도 경제상황이 예년보다 개선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가. 2023년 대내 경제: 식의주 문제<sup>4)</sup>와 기간공업

### ① 먹는 문제 : 농업

- 북한은 알곡 생산을 12개 중요고지 가운데 1순위로 설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였으며, 비교적 양호했던 기상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식량 생산 부문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

- 2023년 북한은 농업 부문에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 2023년은 금 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언급했듯이 ‘심각한 식량난’을 급박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이에 북한은 12개 중요고지의 첫 번째 고지를 알곡생산으로 정하고, 2023년 농촌·농업 부문 지출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한 바 있음(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2023.1.17.~18)

3) 통일연구원(2023)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보았는데, 그밖에 북한이 수치를 과장했거나 생산 실적이 국제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산정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였음. 통일연구원(2023.12.31.). “북한의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Online Series CO 23-42, 통일연구원, p. 8.

4)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강연(2021.10.10.)에서 “5개년 계획기간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효과적인 5년”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이와 더불어 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농사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관개체계 완비, 농기계부문 개진, 간석지 개간 및 경지 면적 증대 등 농업발전목표 및 과업을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비료, 박막, 연유(석유제품) 등 영농물자 및 농기계 지원, 영농사업 지도일군 및 과학농사추진조 파견, 군인 등 노동력의 농촌투입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임
- 금 번 전원회의 보고에서는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인민생활보장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지배적 고지’인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한 것을 2023년도 경제사업에서 달성한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성과’로 평가
- 농업전선에서 실제적이며 실속있는 진흥을 좌우하는 연차별 관개건설목표가 앞당겨 완수되고 보기 드문 풍작을 이룩했다고 강조
  - 30만 정보의 간석지 개간 목표 달성을 위한 토대 마련, 광천 닭공장, 사리원시·해주시·남포시 밀가공공장 등을 성과로 언급
- 한국 농촌진흥청은 2023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을 482만 톤으로 추정, 2023년 기상 조건이 전년보다 양호하여, 2022년 451만 톤보다 31만 톤(6.9%↑) 증가한 것으로 추정

< 2023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치 >

구 분	계	쌀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밀/ 보리	콩	기타 잡곡
재배면적(천ha)	1,893	502	739	349	119	156	28
수량(kg/10a)		420	230	165	183	124	77
2023년 생산량(만톤) (A)	482	211	170	58	22	19	2
2022년 생산량(만톤) (B)	451	207	157	49	18	18	2
2022년 대비 증감비율(%) [(A-B)/B×100]	6.9	1.9	8.3	18.4	22.2	5.6	-

자료 : 농촌진흥청.

- 한편 2023년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식량작물 수입도 늘린 것으로 확인
- 금 년 1~11월 중국은 북한에 쌀 15.9만 톤, 밀가루 9.7만 톤, 옥수수 6,700톤, 두류 100톤 등 총 26.3만 톤의 식량작물을 수출(전년동기 대비 136.9%↑)
  - 러시아도 금 년 1~10월까지 북한에 밀가루 5,700톤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

○ 2023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 및 수입이 늘긴 했으나, 여전히 식량이 부족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 세계식량기구(FAO)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 조사를 시작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 17년째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sup>5)</sup>
  - FAO는 2020/21 유통연도 당시 북한의 식량작물 필요량을 약 595만 톤으로 추정.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3년 북한의 식량부족량은 약 86만 톤 수준
    - ※ 식량부족량 86.3만 톤 = FAO 2020/21 필요량 595.2만 톤 - (식량작물 생산량 482만 톤 + 식량작물 수입량 26.9만 톤).

② 입는 문제 : 경공업

○ 입는 문제와 관련된 경공업 부문 역시 2023년 생산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

- 북한은 국산품 생산을 독려하고 지방 공장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경공업 부문의 성과들도 지속적으로 보도
  - 북한은 코로나19 국경봉쇄 이전부터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전국인민소비품 전시회, 전국206가지일용잡화전시회 등을 연례적으로 꾸준히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로 개최가 중단
  - 방역승리 선언('22.8.) 이후인 2022년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시회를 재개하여 2023년에는 다양한 경공업전시회가 활발하게 개최
  - 한편, 금 번 전원회의에서는 경공업부문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지방공업과 관련해 학생교복공장, 신발공장, 기초식품공장 등이 새롭게 건설되었음을 언급
- 다만, 금번 전원회의에서 학생용품 공급 문제가 별도 의정으로 상정되었는데, 2023년의 성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학생용품 공급 문제는 2022년 12월 전원회의에서 2023년의 주요 사업으로 제기<sup>6)</sup>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금 번 보도에서 성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과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5) 《VOA》 2023년 11월 4일자, “FAO, 북한 ‘외부 식량지원 필요국’ 재지정…17년 연속,” <<https://www.voakorea.com/a/7340889.html>, 검색일: 2023년 1월 3일>.

6) 2023년 1월 제14기 제8차회의 토론에서 리성학 대의원은 “새로운 형태의 학생교복과 가방, 신발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할 것”, 문영선 대의원은 “현시기 피복공업부문에서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교복생산이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기술준비를 선행시키며…”라고 언급한 바 있음.

< 경공업전시회 개최 동향 >

2022년	2023년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2022(10.18-27) 여성옷전시회-2022(10.27-11.9) 밀가루음식전시회(12.13-종료시점 미보도)	봄철전국신발전시회-2023(3.24-31) 봄철여성옷전시회-2023(4.23-5.4) 봄철전국상품전시회-2023(4.28-5.9)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2023(8.3-7)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2023(10.13-20) 경공업발전-2023(10.25-11.21) 전국수산물가공제품전시회-2023(11.8-17) 가을철피복전시회-2023(11.9~21) 2023년국제상품전람회(현장, 11.22-종료시점 미보도) 전국김치전시회(12.4~8) 제14차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12.5-13)

자료 : 통일부, 『일간 북한동향』, 2023년 10월호, p. 23;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1700호 (2023.11.18.~11.24), p. 2; 《로동신문》 2023년 11월 22일자; 2023년 11월 23일자; 2023년 12월 9일자; 2023년 12월 14일자.

- 한편, 중북무역이 코로나 이전(2019년)과 비교할 때 82% 수준을 회복하여 원자재 등 중간재 공급이 개선되어 경공업 등 산업 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③ 짓는 문제 : 건설

○ 짓는 문제와 관련한 건설 부문은 김정은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2023년의 성과로 언급

- 2023년은 8차 당대회에서 강조한 평양 5만 세대(연 1만 세대) 및 검덕지구 2.5만 세대(연 5천 세대) 살림집건설사업의 3년차로 계획대로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평양시 살림집 건설 사업의 경우 매년 1만 세대 이상 건설이 되고 있음
  - 2023년에 화성지구 1단계(1만세대)가 4월에 준공되었고, 2단계(1만 세대) 사업은 2024년 1월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음(4월 준공 예정)
  - 또한, 청년노동자들이 투입된 서포지구(4,100세대)의 경우 2023년 12월 동과 거리명이 부여(전위1,2동 및 전위거리)되면서 준공을 앞둔 것으로 보임
  - 검덕지구의 경우에도 2020년 수해 이후 지난 4년간 2만 여 세대의 살림집이 새로 건설된 것으로 보임
  - 농촌살림집의 경우에도 2022년의 두 배 이상인 5.8만 세대가 건설 진행 중으로 2024년 봄철까지 모두 완공될 예정이라고 보도

- 한편, 각 지방에서 살림집 외 경제적 수요와 지역인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
  - 과학기술도서관, 표준약국, 발전소, 대학, 축산농장·젖소목장, 소년단야영소, 야외극장, 전염병예방원, 산림과학연구소, 항공구락부 등

< 북한의 주요 건설현장 공사 현황 >

주요 건설현장	북한 보도 현황
화성지구 2단계	“이채로운 구조형식으로 단장된 백여동의 호화로운 고층살림집들이 준비하게 일떠서고, 휴식터와 공원들 구획별로 마감완성중”, “머지않아 새 거리완공의 축포성이 울려 퍼질 것”(11.20. 노동)
서포지구	“80층 살림집골조공사 완료”(10.10. 노동), “살림집 외벽타일 붙이기와 봉사당 골조공사, 구획도로건설, 원림조성 등 외부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척”(11.2. 노동) “수백만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애국충심에 떠받들려 수도 평양의 북쪽관문에 웅장화려한 인민의 리상거리가 솟아올랐다”(12.8. 노동)
강동은실농장	“각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다양한 온실들의 지붕트라스설치와 타일붙이기를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하면서 공공 및 관리건물공사에서 날마다 높은 실적 기록” (11.2. 노동)
검덕지구	“단천시 돈산동과 금산동에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설계된 1,400여 세대의 단층, 소층, 다층 살림집을 건설, 새집들이 진행”(11.16. 노동·중통)

자료: 통일부, 『일간 북한동향』, 2023년 11월호, p. 19; 《로동신문》 2023년 12월 7일자 참고.

④ 기간공업 : 중화학공업

○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성격이 포괄제재에서 포괄제재로 변화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화학공업의 정비보강에 중점을 둬

- 금 번 전원회의에서 기간공업부문이 ‘뚜렷한 생산장성’과 ‘정비보강대상이 많이 준공’되어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
  -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기간공업(중화학공업) 관련 제품이 상당수 포진된 ‘12개 중요고지’나 ‘중요지표’에서 생산 목표 달성이나 개선이 이뤄짐
  - 보도문에서도 2022년과 달리 농업, 건설 부문 다음으로 기간공업(중화학공업)의 성과를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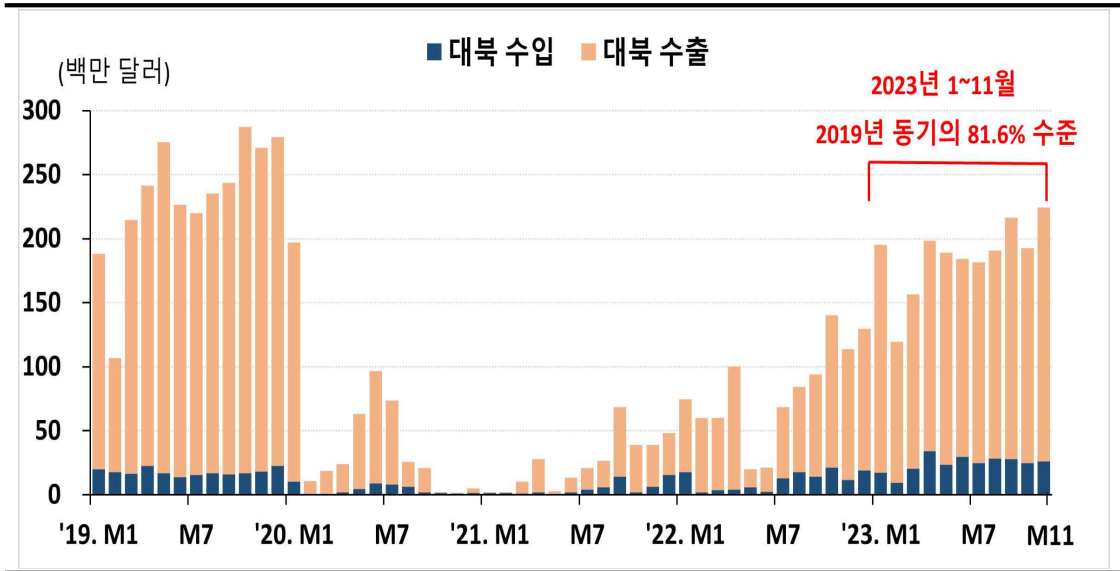
- (금속공업)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에너르기절약형산소열법 용광로건설과 15,000m<sup>3</sup>/h 산소분리기의 설치공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유도로 설치공사와 청진제강소 수직식산화배소구단광로건설, 은률광산 서해리분광산 개발 등을 언급
- (화학공업) 질소비료를 영농공정에 앞세워 생산보장하고, 서해지구의 온실농장 들을 위한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영양액비료공장을 준공,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뇨소합성공정증설과 청정공정보강을 끝내고 송전선공사까지 완료
- (전력공업) 화력발전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수력발전소들의 발전효율을 높이면서 수요에 의한 월별 생산계획을 드팀없이 수행, 주요 송전선로 들에 최량화된 전력계통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여 막대한 전력 도중손실을 줄이고 초고압철탑가공공정을 확립
- (석탄공업)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자강도공급탄광에서 새세기 사회주의애국탄 증산운동 진행 등

## 나. 2023년 대외 경제

○ 2023년 1~11월 중북무역액은 20.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4.7%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이전 2019년 무역액의 81.6% 수준 회복

- 중북무역은 2022년부터 점차 개선되어 왔으며, 2023년 8월 북한이 3년 7개월 만에 인적 왕래를 재개하면서 대외 교류가 전면 재개됨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3년 1~11월 간 중북무역액은 2019년 동기와 비교할 시 81.6% 수준까지 회복(중국의 대북수출은 76.9%, 중국의 대북수입은 138.3% 수준)
- 2023년 8월 27일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코로나19 방역 등급의 (하향)조정 결정에 따라 중국,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이어졌으며, 9월 개최된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선수단 185명을 파견하였음
- 9월 26일 중국 CCTV는 북한이 동월 25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허용(2일 간 의료격리) 했다는 보도를 냈으나, 북한의 공식 확인은 없었음
- 한편, 중국 소재 여행사(Koryo Tours)가 올해 4월 개최 예정인 평양마라톤대회 참가자 모집에 나선 동향도 포착되었음

< 최근 중국의 對북한 무역액 추이 >



자료 : 중국 해관총서(海關总署).

- 2023년 9월 왕야전 북한 주재 중국대사와 정성일 북한 국가관광총국장의 면담을 통해 관광 확대와 인적 교류 정상화를 논의7)
- 왕 대사는 “시진핑 총서기와 김정은 총서기(총비서)의 관심과 전략적 영도 아래 중북(중국과 북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양국 관광 분야 교류 협력이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 이어 내년은 “중북 수교 75주년으로 양국의 관광 부서가 소통을 강화해 관광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한편, 국경 개방과 함께 8월 3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법」을 채택

- 「관광법」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내관광 활성화 및 국제관광 확대, 관광객의 편의 보장, 생태환경 보호 문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8)
- 북한의 관광 관련 법규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경제개발구법」이나 그 하위 규정으로 존재했으나, 금 번 「관광법」 제정을 통해 관광산업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법령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7) 《연합뉴스》 2023년 9월 22일자, “중북관광 재개 초읽기?...中대사, 北관광국장에 "정상화 기대,"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2111900083>, 검색일: 2023년 12월 3일>.

8) 《로동신문》 2023년 8월 31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전원회의의 진행”.

○ 2023년 9월 러북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정부대표단의 방북이 이뤄지면서 러북 간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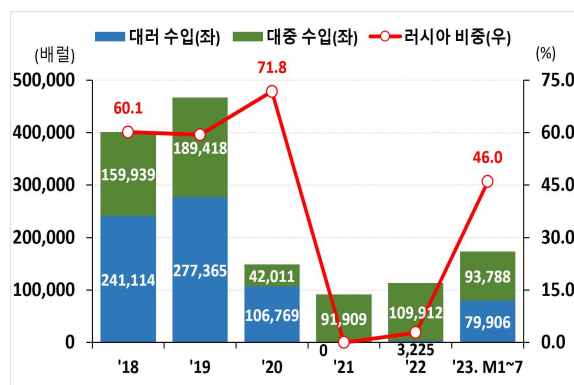
- 2023년은 러북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장관급 경제협력 협의체인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 무역 등 5개 분야의 의정서를 채택
  - 북한의 무기제공 대가로 여겨지는 석유제품의 경우, 2023년 들어 러시아의 대북 수출량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22년 3,225배럴 → '23년 1~7월 79,906배럴, 북한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의 16% 수준)
- 또한 2023년 12월 중순 올레그 코제마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를 단장으로 한 연해주 정부 대표단이 방북하여 경제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는 2023년 11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방북해 관광·통상·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는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를 예방하고, 천리마타일공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 공장, 평양외국어대학 로어쎄타, 마식령스키장 등을 방문
  - 북한 또한 대표단을 연해주에 파견하여 양측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후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음<sup>9)</sup>

< 9월 러북정상회담 경제부문 의제(추정) >

구분	주요 내용
무역	- 북한의 대리 원유·정제유 및 밀 등 식량 중심 수입 전개
관광	- 북한-러시아 극동지역(연해주) 간 관광협력 전개
교통물류	- 나진-하산프로젝트의 재개 및 취급 품목 확대
노동자 고용	- 러시아 극동지역에 북한 노동자 (건설·농업) 송출

자료 : 언론보도 정리.  
 주 : 정상회담 당시 나진-하산프로젝트 재개 의제만 공개.

<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 추이 >



자료 : UN대북제재위원회.  
 주1) 북한에 석유제품을 수출한 각국이 UN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양.  
 주2) 중국, 러시아 외 보고량 없음.

9) 《KBS뉴스》 2022년 12월 13일자, “북한 대표단, 이번 주말 러시아 연해주 방문…협력 확대 모색”, <<http://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0864>, 검색일: 2023년 1월 4일).>

### 3. 2024년 북한경제 전망과 과제

#### 가. 전망

○ 2024년 경제 및 산업 정책 방향은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4년차 목표 수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전망이다

-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 총비서는 2024년 투쟁 방향에 대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 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로 규정
  - 김 총비서는 2024년에 (8차)당대회결정관철에서 ‘미진되거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된 힘을 넣을 것’을 주문
  - ‘미진’되거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2023년에 세부 부문별 목표 달성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일부 부문(농업, 건설 등)에 생산이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존재
  -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위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산업 부문에 대한 성과 달성을 독려하고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 이와 함께, 경제 부문에서 선차적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로서 ‘국가적인 행정경제사업체제와 질서 강화’를 주문
  - 내각이 헌법에 부여한 임무(전반적국가관리기관)에 맞게 ‘국가경제의 명맥을 살리고 목적지향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할 것’을 지적
  - 이는 202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단위특수화’ 및 ‘본위주의’와의 투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내각이 경제 부문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판단됨
    - ※ 북한은 2021년 7월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을 채택해 관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특히, 금 번 전원회의에서 ‘당중앙검사위원회 2023년도 사업정형’ 심의나 ‘당의 령도적기능 강화’ 등을 별도 의정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았을 때 당 및 내각의 경제부문 지도·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됨
  - 전원회의 기간 중 《로동신문》 사설에는 법기관과 법무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적 입장과 나라의 전반적 이익의 견지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통제할 것’을 주문하기도 함<sup>10)</sup>



- 보고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해 2024년도에도 12개 중요 고지에 힘을 집중할 것을 강조
  - 금 번 전원회의 보고에서는 2023년 성과에 대한 언급에 비해 2024년 계획에 대한 언급은 그리 많지 않았음
  - ※ 금 년 1월 15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2024년도 계획이 드러날 가능성도 존재.
  - 부문별로는 기간공업(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 등), 건설, 국토환경 보호 및 도시경영, 농업, 경공업, 잠업, 상업·급양·편의봉사사업, 수산업, 수도(평양) 사업 등의 순으로 언급이 이뤄짐
  
- 기간공업부문에서는 기계공업 관련 계획만 언급.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제8기 기간(~2025년)에 ‘현대화의 표준, 본보기’로 만들 것을 강조
  - 룡성기계련합기업소 현대화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5개년경제발전계획기간에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락원기계종합기업소 등 중요기계공장의 현대화하는 것을 기계공업발전방향으로 확정
  
- 건설부문은 수도(평양) 및 농촌살림집 건설을 추진하는데 제기되는 과업들, 국토 환경 및 도시경영부문은 연차별 재해위기 대처 사업 실행 등이 언급
  - 작년과 달리 건설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명은 공개되지 않았음. 기존 평양시 5만세대 건설 및 검덕지구 2.5만세대 건설 사업과 그와 별도로 전국 단위의 농촌 살림집 건설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
  
- 농업 부문에서는 2023년 기조가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며, 그 중 농업 기계화, 밀가공공장 건설 및 기술 개선 등의 눈에 띈
  - 2023년 군수공업부문과 기계공업부문에서 농기계 생산 및 지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김 총비서는 2024년 1월 2일 새해 첫 경제현장 점검으로 김덕훈 내각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와 농기계전시회(‘농기계공업발전-2023’)를 방문
  - 그는 ‘현시기 농기계공업분야에서 비약적 개변을 안아오는 것은 혁명의 절박한 요구며,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라고 언급

10) 《로동신문》 2023년 12월 27일자, “사회주의헌법은 전면적국가부흥을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 및 기초식품의 질제고, 경공업 및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등 목표를 설정하고, 수산업부문에서는 원양어로를 적극화하여 수산물 증산을 요구
  - 경공업부문에서 학생용품 공급 문제가 별도 의정으로 제기되며 ‘중차대한 혁명사업’으로 의미를 부여받은 만큼 관련 부문에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 대외부문에서는 사회주의국가 집권당과의 관계발전에 주력하고 반제자주 국가와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갈 것을 목표로 설정

○ 북한의 경제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북한은 자력갱생 기초 강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의 루프홀(loophole·구멍)로 활용할 가능성

- 북한은 제재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자력갱생 기초하에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국산화·재자원화 정책,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이 계속 강조될 것으로 보임
  - 중북무역이 2020년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나, 기존의 무역구조와 같이 무역총액의 대부분을 수입액이 차지하고 있음(2023년 1~11월 무역총액의 87%)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대북제재로 외화획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충분히 수입할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음
  - 북한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자력갱생을 더욱 강조하고, 대중동원 등 대규모 노력동원이나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국산화·재자원화 정책 외의 정책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수입 일변도의 무역구조라도 중북무역의 확대 수준은 2024년 북한경제의 회복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중북무역이 확대될 경우, 북한에서 생산이 어려운 원부자재 공급이 늘어나 북한경제 회복에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한편, 2024년은 중북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로 중북 인적 교류 재개가 이뤄져 관광이 본격 재개될 경우, 수입에 필요한 외화 획득이나 북한 서비스업 부문이 개선될 여지도 존재

-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어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나. 정책 과제

### ○ 북핵 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중북 간 관광 재개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할 필요

- 2024년 중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전후한 대규모 인적 교류 재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 특히, 금강산과 원산지역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 모색 동향 등을 집중 추적하여 금강산과 원산을 중심으로 한 향후 남북 간 접촉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 ○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과 발맞춰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지속할 필요

- 남한의 주요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교류협력 추진 계획과 북한의 지방경제발전 정책, 남북간 기존 협력 경험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 주요 인적·물적 자원 등을 고려한 효과적 협력 과제를 모색할 필요
  - 2023년 5월 제정된 ‘평화경제특구법’의 시행을 계기로 접경지역 중심의 남북 관계 전환 모멘텀 마련을 고민할 필요

HRI

## 참고 문헌

-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올해 북한 식량작물 482만 톤 생산, 전년 대비 31만 톤 증가” 2023.12.15.
-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23년 10월호.
- \_\_\_\_\_, 『월간 북한동향』, 2023년 11월호.
- \_\_\_\_\_, 『주간북한동향』, 제1681호(2023.7.1.~7.7).
- \_\_\_\_\_, 『주간 북한동향』, 제1700호(2023.11.18.~11.24).
- 통일연구원(2023.12.31.). “북한의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Online Series CO 23-42, 통일연구원.
- UN대북제재위원회, <https://www.un.org>.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http://gdfs.customs.gov.cn/customs/syx/index.html>.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 《연합뉴스》 2023년 9월 22일자, “중북관광 재개 초읽기?...中대사, 北관광국장에 "정상화 기대",”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2111900083>, 검색일: 2023년 12월 3일>.
- 《KBS뉴스》 2023년 12월 13일자, “북한 대표단, 이번 주말 러시아 연해주 방문...협력 확대 모색”,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0864>, 검색일: 2023년 1월 4일>.
- 《VOA》 2023년 11월 4일자, “FAO, 북한 ‘외부 식량지원 필요국’ 재지정...17년 연속”, <<https://www.voakorea.com/a/7340889.html>, 검색일: 2023년 1월 3일>
- 《로동신문》 2023년 8월 31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전원회의 진행”.
- \_\_\_\_\_. 2023년 11월 22일자,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 폐막”.
- \_\_\_\_\_. 2023년 11월 23일자, “활발히 진행되는 《2023년 국제상품전람회》”.
- \_\_\_\_\_. 2023년 12월 7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88호-주체112(2023년) 12월 5일 평양시 서포지구에 새로 동, 거리를 내움에 대하여”.
- \_\_\_\_\_. 2023년 12월 9일자, “전국김치전시회 진행”.
- \_\_\_\_\_. 2023년 12월 14일자, “제14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 폐막”.
- \_\_\_\_\_. 2023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은 전면적국가부흥을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_\_\_\_\_. 2023년 12월 31일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 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년 7월 4일자, “자립의 정신, 자력의 창조 본때로 전면적 부흥발전을 위한 총진군에서 이룩된 소중한 성과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속에 주요 부문들에서 상반기 계획 초과완수”.